

대권에만 몰두 “도민·의회 무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원 지사 잦은 출장 맹폭 “지역출신·전문가 소외”... 측근 채용 심각성도 질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대권 도전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쏟아졌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지난 15일 김부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 (마포포럼)'에서의 사실상 대권출마 공식화를 두고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제38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상봉)는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정책질의에서 원 지사의 잦은 출장과 대권도전 행보에 따른 도정 소홀 우려를 도마에 올렸다.

>> 관련기사 2편
 강철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읍)은 “원희룡 지사 재임 기간 연평균 113일을 출장 다니신다. 최근 행보를 보면 과연 도민을 위한 출장인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대권도전 발표도 행감기간에 하시나, 수감기관의 장 아니냐. 최소

한 의회에 대한 예의를 지키셔야겠다”고 지적하면서 도정 공백 우려에 대한 부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최승현 부지사는 “(도정 공백을) 아직 못느끼고, 행정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특별히 걱정안해도 될 거 같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도민이 보기에는 우려스럽고 불안하기까지 하다”면서 총연과 책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최 부지사의 “행정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답변에 대해 “차라리 AI 인공지능 지사를 뽑아서 하면 되지. 왜 도민들이 굳이 지사를 선택하겠나”라며 부적절한 발언임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원 지사의 마포포럼 발언과 관련 “민선7기 지사 선거에서 도민에게 도정에 전념한다고 약속했으면 공식 대권 도전은 마포포럼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해야한다. 도민에게 먼저 양해 구하고 큰 그림

그리겠다고 호소해야했다”며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꼬집었다.

고현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도민 정서가 스산하고 어려운 이 지점에 지사가 서울 마포포럼에 가서 대권을 이야기하는게 도민 눈높이에서 적정한가”라며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했음을 지적했다.

한편 강성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읍)은 원 도정 출범 이후 제주도와 산하기관 개방형 직위 채용에 도의 출신 및 지사 측근 채용이 심각함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도의 대학 출신자가 64.9%(도내 35.1%)로 압도적으로 많고, 개방형직위 채용인원 중 도지사 측근 등 비율이 33.9% 비중을 차지하는 등 개방형직위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측근과 선거공신 등 때문에 도내 대학 및 지역 출신과 능력있는 전문가들이 채용과정에서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오른쪽기사 ejuh@ihalla.com



단감에 취한 등박새 22일 제주시 아라동 한 가정집 정원의 감나무에 등박새가 날아와 노랑게 익은 감을 쪼아 먹으며 가을의 풍성함을 즐기고 있다.

코로나에 지친 삶, 숲에서 잠시 치유를

2020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25-29일 붉은오름 입구에서 탐방객 마스크 필히 착용을

“2020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행사가 오는 25일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변에 위치한 사려니숲 붉은오름 입구에서 개막해 29일까지 닷새동안 열린다.

>> 관련기사 7편

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길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2002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생물권보전지역에 위치한 사려니숲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올해 열두번째를 맞이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행사는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개막

식과 전문가 탐방은 진행하지 않지만 막 가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아름다운 숲길을 걸으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으로 선보인다. 사려니숲길위원회는 안전한 숲 체험을 위한 꼼꼼한 방역을 준비중이다. 탐방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탐방로 입구에서 2m 거리를 두고 손소독과 열화상카메라로 발열체크,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후 현장에서 나눠주는 몸에 붙이는 체온계를 부착한 후야야 탐방에 나설 수 있다.

탐방은 남조로변 붉은오름 입구 (1118번 도로)와 비자림로 (1112번 도로) 사려니숲길 입구에서 출발할 수 있다. 평소 통제구간인 월든삼거리에서 성판악 휴게소 구간도 행사 기간에는 길을 수 있다.

행사기간 자연휴식년제중인 탐방

로 구간도 물맞춤 탐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하루 6차례 물맞춤 탐방이 각각 20명 단위로 출발하는데, 사전예약 (750-2291-2543, 주말은 제외)해야 한다. 현장예약은 받지 않고, 기상악화로 탐방이 제한될 경우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또 숲속 힐링 명상이 열린무대 인근에서 26-29일 하루 두 차례 (오전 10시, 오후 2시) 현장에서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5·27·29일 오전 11시에는 무대공연이 선보이고, 부대행사로 사려니숲 생태사진 전시회·사진공모전·UCC 영상공모전을 진행해 시상도 한다. 월든삼거리에서 위치한 코로나19 예방 홍보 캐릭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증샷을 찍는 이벤트도 있다. 문의: 063-261-1111

독감 백신 중단없이 진행... 인과성 확인 안돼

제주도 “사망자 동일 백신 접종자 188명 모니터링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도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자 발생과 관련, ‘백신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질병관리청의 브리핑과 전국적으로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단 없이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브리핑에서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높

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사망자 A씨 (68세)가 접종을 받았던 해당 의료가 관은 현재 예방접종이 중단된 상태이나, 나머지 민간 위탁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는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숨진 A씨가 접종한 동일 백신인 녹십자사의 ‘지씨플루 코드리벨런트(Q60220030)’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한 188명 중 22일 오후 3시 현재 2명이 명 자국이나 몸살 기운 등 경미한 증상을 보였고, 나머지 95명은 이상 증상이 없는 상태다.

도 보건당국은 연락이 닿지 않는

나머지 접종자 91명(결번 27명, 전화 연결 안됨 64명)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후 발열, 무력감,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이 발생 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하다”며 “수 시간 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나 병·의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과 접종과의 연관성 규명을 위해 유족들과 협의를 통해 23일 부검할 예정이다.

백묵타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도, 전국 최초 동물등록 비용 무료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 비용을 무료지원한다.

도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동물에 대해 내장형 칩과 수수료(2만3000원 상당) 등 제

반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62개소 (제주시 46, 서귀포시 16)다.

앞서 도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에 등록비용 면제조항을 두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해마다 등록되는 반려동물 수가 늘고 있다. 연도별 도내 동물등록 실적은 2017년 2737마리, 2018년 4339마리, 2019년 1만1336마리에 이어 올해 9월 기준 3985마리 등이다.

백묵타기자 haru@ihalla.com

1천여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건설사는 강성민 도의원의 침체된 건설경기 대응방안 제시에 적극 지지합니다!

2020년 10월2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성민 도의원이 지적·제시한 지역분리 발주 지침이 우리 전문건설업의 상생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도내 전문건설업은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지침 등을 제정·시행을 요청합니다.

경원건설, (주)경은건설, 광영기업(주), 구산건설주식회사, (주)규성, 금와건설(주), 금탑건설(주), 기성건설(주), 기완건설(주), 주식회사다한건설, 대기산업(주), 대명건설(주), (주)대신건설에디, (주)대진기업, 대현토건(주), 덕운건설(주), (주)덕천개발, 도광건설(주), 도일건설(주), (주)동민건설, (주)동성건설, (주)드림하우징, (주)무한건설, 법운토건(주), 삼광건설(주), (주)삼다석재, 주식회사삼도개발, 삼도건설(주), 삼성건설(주), (주)삼진포장건설, 주식회사서부, (주)선우도장건설, 성우토건(주), (주)성원, 세풍건설(주), 수석건설(주), (주)신성기업, 신세계건설(주), 신일토건, (주)신한안전산업, (주)아라석건, (주)아인산업, 아진건설(주), 영상토건(주), 영운기업, 우광건설(주), 우남건설(주), (주)우영개발, (주)웅진건설, 유미건설주식회사, (주)윙풍영, (주)은덕엔지니어링, 은창건설(주), 장완건설(주), (주)정우, (주)제이비스틸, 조영기업(주), (주)창작시스템, 창흥건설주식회사, 청호환경건설(주), 태림조경, (주)하나건설, (주)하나금융, 주식회사한라건설산업개발, 한민기업(주), (주)한영건설, (주)한진건설, 행운금융, 현대건설(주), (주)현일건설, 호암건설(주), 화랑건설주식회사, 황산건설(주) 외